

부산시, 美 관세유예 종료 대비… 수출피해 최소화 총력

수출기업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긴급운전자금 등 지원책 총동원
‘관세 119’ 상담창구 운영 강화
신시장 개척·무역구조 다변화

부산시는 오는 9일 종료 예정인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에 대비해 7일 오후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수출 위기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에는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지원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본부세관, 부산상공회의소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수출기업 3곳(헬릭스 테크, 지맥스, 자연지에)도 함께 회의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기업 대표들은 실제 수출 애로사항 등을 건의하고, 기관과의 협



부산시청 전경.

력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오는 9일까지 미 상호관세 부과 여부 등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오늘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적극 검토, 수출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지역의 수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지역기업의 수출 손실 위험(리스크)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부산시 비상수출대책 2.0’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시는 ▲1개 사 최대 대출한도 8억원의 긴급운전자금을 1천억 원 규모로 지원 ▲수출보험·신용보증료 확대 지원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지원 분야 신설 ▲‘관세 대응 119’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운영 ▲대미 중심 무역구조 탈피·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지역기업의 긴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수출위기 현장 대응반’ 운영해 피해기업 밀착지원에 나섰다. 6월에는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통관 이슈 등을 공유하는 ‘녹산산단 관세 핀셋포인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분산된 수출 지원 정보 접근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을 고도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1기업 1고문 변호사제 도입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점검회의는 미국 관세 유예종료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 수출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해수욕장 4곳 이달 11일 개장

경주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총 38일간 지역 내 해수욕장 4곳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오류고아라해변, 나정고운모래해변, 봉길대왕암해변, 관성솔밭해변 등 4곳이며, 전촌솔밭해변은 올해 개장하지 않는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시는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루 78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인명 구조요원과 소방·경찰 인력, 해변 순찰 인력 등이 각 해수욕장에 분산 배치된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김천시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건립

경북 김천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김천시는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최종 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친환경 미래차 부품전환 지원센터’는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 부품산업 구조를 전동화·경량화 중심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김천 일반산업단지 내 1980㎡ 규모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천(경북)=김진곤 기자

진도군

올해 ‘다산안전대상’ 수상

진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행정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산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 기관, 단체, 개인, 시군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상을 수여하며, 안전 분야에서 전라남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진도군은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재난예방사업, 총 4개의 평가 분야에 고른 평가를 받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4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대구시

‘청년 정책 제안’ 공모 실시

대구시는 전국 청년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2025 대구광역시 청년 정책 제안 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대구시 사회초년생을 위한 응원 프로젝트,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대구 만들기, 고독사 예방을 위한 효과적 아이디어 등 3개 분야로, 1986년부터 2006년 사이 출생한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책 제안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토크대구’나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북도, 동해선 따라 관광열차 달린다

경북·강원·부산·울산 공동 기획
관광·미식·체험 결합한 테마 열차

오는 17일과 19일 동해선에서 ‘완벽한 기차여행’ 관광전용 열차가 운행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관광열차는 동해안관광진흥협의회(경북, 강원, 부산, 울산 4개 시도)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경남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완벽한 기차여행’은 17일 부산-울진, 부산-삼척-동해 코스와 19일 울진을 경유하는 동해-부산, 동해-울산 코스 등 4가지 코스로 구성된다.

열차 여행에는 지역 관광, 문화 체험, 미식, 열차 내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돼 있다.

여행비용은 왕복 열차료, 식비, 입장권, 가이드 비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열차 안에는 1일 바텐더로 임명된



울진 케이블카.

코레일 직원이 만드는 하이볼 시음 및 지역 특산물 체험이 가능한 ‘완벽 카페’와 관광지 사진으로 꾸며진 ‘포토존 및 셀프 사진기 부스’도 마련된다.

17일 운행하는 울진 코스에서는 10만5000원으로 열차 내 모든 콘텐츠와 함께 왕피천케이블카, 성류굴, 덕구온천과 바지게시장 등 동해안 필수 여행지를 체험할 수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경남도, 여름철 가축질병 집중 방역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 가동

경남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매개곤충 활동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침파리 등 주요 매개체의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럼피스킨 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조기에 알리고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럼피스킨 위험주의보 발령체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고공포집기 18개와 거점센터 4개소를 통해 전국 예찰 농가 120호를 대상으로 침파리 등 매개곤충을 상시 채집 분석한다.

위험주의보는 침파리에서 럼피스킨 바이러스 검출, 고공포집기에서 침파리 채집이 확인됐을 때, 예찰농가 대상 평균 침파리 20마리 이상 채

집되는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 발령된다.

경남도는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했던 지난해 7월 말 침파리 평균 채집수가 21마리였던 점을 언급하며 7~8월 집중 예찰 기간에 조기 경보 시스템을 통해 농가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자율 방역이 곧 최선의 백신”이라며 “여름철은 침파리와 모기 등 매개체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백신 접종과 축사 내·외부 환경관리 등 농가 차원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주의보 발령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럼피스킨 외에도 아까비네병, 소유행열, 축사 환경 정비 등 축산농가의 실천 사항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기장군, 오션블루레일 사업 추진 본격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기장군이 추진하는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부권 관광 개발계획’의 핵심 사업인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 사업은 장안읍 좌천역에서 월내역까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월내항 일대에 자연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총 47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사업은 2028년 완료를 목표로 하

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친환경 생태휴식 공간인 에코숲, 바다 조망이 가능한 오션 오버브리지 전망대, 유람선 선착장 역할을 할 에코 스테이션, 미디어 아트 체험관 등이 들어선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올해 국비 등 사업비 확보가 가능해졌으며 2026년 실시 설계 용역 완료 후 2027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울산 장생포항에서 기장까지 관광유람선 항로가 신설돼 남부권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장(경남)=이도식 기자

울산시, 우즈베크 조선 숙력인력 양성 성과

전기·도장·사상 분야 기술 교육

울산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2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훈련소 내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에서 조선업 기술인력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료식은 김두겸 시장과 무사예프 베흐조드 우즈베키스탄 이민청장, 하이룰라 보자로프 페르가나 주지사, 수료생과 교육 감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수료증 수여 ▲기념촬영 ▲교육 현장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지난 4월 18일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된 전기 ▲도장 ▲사상 등 3개 분야의 국제 수준 기술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이수했다.

수료생은 총 97명으로, 이들은 향후 울산지역 중소조선소에서 취업 기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수료식은 단순한 교육 마무리가 아니라 이들이 기술 인력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며 “울산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이도식 기자